

제4차 학생공개토론회 ‘학생은 이런 강의를 원한다’: 대학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서울대학교-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표회

김훈호*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 조교.

학생공개토론회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학부 강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학생공개토론회를 의미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학부 강의에 관심이 있는 연구 소집단을 선정하고, 기획부터 조사,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소집단의 연구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팀에게는 소정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의 학부생들과 함께 공동연구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의 교수·학습 개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양측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화상 회의(Video Conference)를 통해 서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연구 주제

대학	연구 주제	연구원
서울대학교	A Case Study on the Educational Growth	교육학과 01학번 신효정 교육학과 01학번 조지혜 교육학과 03학번 윤미희 교육학과 04학번 서은진
	Adaptation Prog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SNU	교육학과 교환학생 이복실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02학번 김해딤
	What Lecture Do Students of SNU Want?	기계항공학과 03학번 정세뜸 영어영문학과 03학번 이유미 외교학과 04학번 홍준기 경제학부 04학번 최진희 사회과학계열 05학번 박진광
게이오기주쿠대학	On Globaliz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Shiraishi, Hideaki Kitaura, Saeri Takase, Yohe
	To Create the Leaders of Society	Mashino, Takeru, Miyoshi Sato, Harunori Torii, Natsuho Horie, Yasunari
	What is the Ideal General Education at University?	Makino, Yusuke Minami, Kimito
	What Should/Can We do to Improve University Education?	Hara, Yukiko Oba, Yujiro Sumikura, Hidemitsu Nomura, Satoshi Hagiwara, Rie Hayakawa, Tomoko

서울대학교는 3개의 연구소 집단이 구성되었으며,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은 4개 팀이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5월말 연구 소집단 선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연구가 시작이 되었으며, 9월 중순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10여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과 연구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교육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첫 번째 연구팀은 ‘삶과 교육’이라는 핵심 교양 강의의 수업 방법을 분석하여 이것들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교환학생과 유학생으로 구성된 두 번째 연구팀은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업 성적이 매우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서울대 저널의 기자들로 구성된 세 번째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강의 선택 기준과 좋은 강의라고 평가 받는 수업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좋은 강의를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탐색해보았다.

2. 연구 발표회

연구 발표회는 9월 22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43-1동 306호에서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게이오기주쿠대학 연구팀의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 학생들과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발표자가 되었다. 발표회는 화상 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팀마다 파워포인트



화면 속 게이오기주쿠대학의 참가자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자료를 만들어, 그 화면과 발표자 영상을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장에는 각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 및 연구를 진행한 학생들, 그리고 이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한 학생들이 자리해 있었다.

각 연구팀마다 약 10~15분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으며, 게이오기주쿠대학 1개 팀과 서울대학교 1개 팀의 발표가 끝나면 양 팀 모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5~20분 정도 주어졌다. 각 연구팀의 발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질의응답의 경우 양측에 통역인을 배치하여 자국어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팀마다 발표 시간은 비교적 정확히 엄수하였으나, 질의응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발표회는 예정한 시간보다 무려 1시간 30분이나 늦게 끝이 났다.



게이오기주쿠대학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고 서울대학교 측 참가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3.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학생공개토론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발표회 개최까지 전 과정을 통

해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誘因)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소정의 연구비와 발표회 참가비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4개월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매우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학생공개토론회 연구 소집단을 다시 모집할 때에는 연구 경비뿐만 아니라 우수 연구팀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게이오기주쿠대학 방문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통 5월에 연구 소집단을 모집하여 6월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학사 일정상 6월초부터 중순까지는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방학이 시작되는 7월 즈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종강을 하고, 방학을 맞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부생에 대한 설문조사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공개토론회 일정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초에 연구 소집단 모집 공고를 하고, 7월 중순까지 참가 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연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 계획서의 질 또한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뒤 방학 기간 동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선행 연구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고, 설문지나 인터뷰 문항 등을 개발하도록 한 다음, 개강과 함께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게 한다면 연구 대상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발표회는 11월초나 중순경으로 늦추어 개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만일 이렇게 일정을 구성한다면 보다 양질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